

“생존을 넘어 가속할 때… 도전과 혁신 원년 삼자”

제약사 CEO 신년사

우종수 한미약품 사장

“내실 기반으로 글로벌 성과내야”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개방형 협력 통한 혁신신약 개발”

새해를 맞은 첫날, 국내 제약사 최고 경영자(CEO)들이 2020년을 도전과 혁신의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지난 시간 쌓아온 내실을 바탕으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2일 열린 시무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존을 넘어 도약과 성장을 향한 최선의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0년은 미래를 향한 행보를 더욱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을



2일 한미약품 시무식 현장에서 우종수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2020년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고 있다.

도모해야 할 때로,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 Great Yuhan, Global Yuhan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종수 한미약품 사장은 ‘제약강국을 위한 한미의 새로운 도전 2020’을 선포했다. 우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씬 없이 달려온 한미의 R&D 도전 역사와 국내사업부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지난 10여년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실을 다져왔다”며 “2020년부터 펼쳐질 앞으로의 10년은 지금까지 쌓아온

내실을 기반으로 반드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제약업계가 한미약품에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미약품이 해내야 한다.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역시 이날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올해는 글로벌 2025 비전 달성 목표를 위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한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글로벌 사업확대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원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전 사장은 대웅제약의 2020년 경영방침으로 ▲고객가치 향상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개방형 협력을 통한 혁신신약 개발 ▲도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을 제시했다.

전 사장은 “올해는 그동안 갖고 닦은 대웅제약 신약 개발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사고방식의 전환, 도전과 변화를 일깨

우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며, 임직원도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하여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화를 위한 임직원들의 끝없는 노력도 독려했다.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자신의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것과 더불어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남도 잘 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GC녹십자가 추구하는 기업정신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에도 인격이 있는 만큼, 높은 인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기업의 성공이 구성원과 사회의 풍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이길선 부부와 아기(앞줄)가 이식을 담당했던 박재범·장해련 교수(뒷줄 가운데, 오른쪽)

신장이식 환자 출산 성공… 국내 첫 사례

(면역관용유도)

삼성서울병원

세계 이식센터 중 4곳서만 이식 가능

면역관용유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기를 출산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세번째다.

삼성서울병원은 면역관용유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길선(39)씨가 지난 11월 27일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장 이식 환자가 출산

한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면역관용유도 이식을 받은 환자의 출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역관용이란, 면역억제제 복용 없이도 이식된 장기가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세계 4곳의 이식센터에서만 면역관용 유도 신장이식이 가능하다. 국내에선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WHO 인증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 격성평가(PQ)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세포배양 방식의 3가 독감백신이 WHO PQ 인증받은 데 이어 4가 독감백신의 품질도 인정받게 됐다. 세포배양 방식으로 생산된 4가 독감백신이 WHO PQ 인증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WHO PQ 인증은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PQ 인증을 받아야만 유니세프(UNICEF), 파호(PAHO, 범미보건기구)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WHO PQ 인증을 기반으로 독감백신 국제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JW중외제약 JP모건 컨퍼런스 참석… 수출 적극 홍보

글로벌 투자사들과 일대일 미팅 치료제, 추가 기술제휴 사업 논의 ‘JW1601’ 전략, 개발 현황 공개

JW중외제약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행사인 기술수출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굴한다.

JW중외제약은 1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사들과 일대일 미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주요 혁신신약 후보물질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술수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아토피 피부

염 치료제 ‘JW1601’과 통풍치료제 ‘URC102’의 추가 기술제휴 사업을 논의한다.

JW중외제약은 ‘JW1601’의 적응증 확대 전략과 개발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JW1601’은 히스타민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염증과 가려움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로, 현재 아토피 피부염에 이어 노인성 황반변성, 알러지성 결막염 등의 안과 질환에 대한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통풍치료제 ‘URC102’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통풍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중

국에 기술수출 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라이선스-아웃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Wnt 표적항암제 ‘CWP291’, Wnt 표적탈모치료제 ‘CWL08061’, 수지상세포치료제 ‘CreaVax(크레이박스)’ 등에 대한 최신 연구 현황과 임상개발 전략도 설명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 이성열 대표는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데 최적의 행사”라며 “JW1601과 URC102의 연이은 기술수출로 확인된 JW의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메디톡스, 액상형 보툴리눔 ‘이노톡스 100단위’ 첫 선

25, 50단위 다양한 용량 라인업 美 cGMP 기준 제2공장 가동율 ↑

메디톡스 제2공장에서 생산한 ‘이노톡스 100단위’가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지난달 27일 자사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A형 제제 ‘이노톡스(INNOTOX)(사진)’ 주 100단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허가 획득으로 기존 ‘이노톡스’ 25단위, 50단위와 함께 다양한 용량의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으며, 미국 cGMP 기준의 이노톡스 전용 공장인 제2공장의 가동율도 높아지게 됐다.

메디톡스가 2014년 세계 최초로 개발



한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A형 제제 ‘이노톡스’는 사람혈청알부민과 제조공정상 동물성 유래물질을 완전히 배제하여 안전성을 강화한 보툴리눔 독신 제제다. 액상형으로 개발되어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 시술 편의성을 한층 개선하였으며 보다 정밀한 시술 용량 산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이번 이노톡스 100단위 허가는 다양한 용량의 라인업을 확보되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노톡스의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프리미엄 독신 시장에 대한 선점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가 보유한 3종의 보툴리눔 독신 제제(메디톡스, 이노톡스, 코어톡스)를 잇는 신개념의 ‘프리필드 실린지’형 독신 제제도 곧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 ‘이노톡스’의 선진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미국 앨러간 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 앨러간 사는 오는 2022년 이노톡스의 미국 출시를 목표로 미국 및 유럽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